

슈틸리케 “국민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



‘금의환향’ 2015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축구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 감독과 선수들이 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러시아 월드컵’ 이다

한국 연장 혈투 끝 1-2 패...아시안컵 준우승

3월 국내서 호주·뉴질랜드와 평가전...6월 11일 예선 첫 경기

잘 싸웠다! 태극전사, 이제 월드컵이다.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태극전사들의 연장전 투혼이 ‘사커 루’ 호주의 철옹성에 막혀 준우승으로 마무리됐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31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개최국’ 호주와의 2015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전반 45분 마시모 루용고(스윈던타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6분 손흥민(레버쿠젠)의 동점골이 터지며 1-1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힘겨운 연장전 혈투에 들어간 한국은 연장 전반 종료 직전 호주의 제임스 트로이시(윌테 바레험)에게 통탄의 결승골을 내주고 1-2로 석패했다.

태극전사들은 아쉬움을 달래고 6월 시작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체제에 돌입한다.

최종예선과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총 4단계로 진행되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중 한국은 2차 예선에 직행한 상태다. 1차 예선에는 46개의 AFC 소속 FIFA 회원국 중 FIFA 랭킹이 낮은 12개국만 참가해 2차 예선 진출권을 가린다. 2차 예선에서는 1차 예선을 통과한 국가를 포함한 40개국을 8개 조로 나누어 홈 앤드 어웨이 풀리그를 치른다. 각 조 1위는 3차 예선으로 직행하며, 2위 국가 중 성적이 좋은 4개국만 3차 예선에 합류한다.

2차 예선 첫 경기가 올해 6월 11일 열리고, 2차전은 같은 달 16일 이어져 남은 시간은 5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경기는 9~11월 매달 열린다. 최종예선에 진출하는 팀은 2019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2차 예선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아시안컵 이후 월드컵 2차 예선 시작 전까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해외파를 총망라한 전열을 점검해 볼 기회는 사실상 3월 A매치 기간뿐이다.

FIFA가 정한 3월 A매치 기간은 23~31일로, 한국 대표팀은 3월 27일과 31일 국내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팀 소집일은 3월 23일이 될 예정이다.

상대팀은 아직 조출 중인 가운데 3월 31일에는 원정에서 만나려 했던 뉴질랜드와의 경기가 논의되고 있다.

월드컵 2차 예선 1-2차전 이후에는 8월 중국에서 동아시안컵연맹(EAFF) 동아시아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회는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고 차출 의무가 있는 대회도 아니어서 국내파 선수 위주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슈틸리케 감독

“즐기는 법 못 배우는게 한국축구 문제점”

슈틸리케 감독 일문일답

“주전·비주전 모두 힘 합쳐 결실

대표선수 선발 더 많이 지켜보겠다”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지난 31일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러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날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개최국 호주와의 2015 아시안컵 결승전을 마친 뒤 선수들의 선전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소감을 밝혔다.

한국은 호주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로 저우승컵을 코앞에서 놓쳤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어로 준비한 게 있다며 종이를 꺼내 한국어로 당부를 전했다. 그는 “가슴 속 깊이 우리나라서 할 말이 있다”고 영어로 말한 뒤 한국어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라고 전전히 말했다.

다음은 슈틸리케 감독과의 문답.

-아쉽게 준우승했다.

▲우리가 우승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

승 트로피만 가지고 가지 않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잘했다고 격려한다.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웠다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

-수비수나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박주호를 왼쪽 윙어로 내보냈는데.

▲오늘 선발진은 호주를 철저히 분석한 뒤 내린 결정이었다. 양쪽 측면에 공격수를 두는 게 위험하다고 봤다. 호주는 풀백들이 위협적이었다. 오늘 특별히 수비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다.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간 게 실점으로 이어졌다. 경기를 뒤집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신적 부분을 많이 강조하곤 했는데, 선수들에게 앞으로 어떤 주문을 할 것인가.

▲두 골을 허용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정신적으로는 괜찮았다. 두 번째 실점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아쉽다.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점들은 좋아질 것이다. 경험이 적은 선수들의 잘못은 고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번 대회 때 국민이 많이 즐거웠다. 많은 가능성을 봤다. 월드컵 예선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비전을 설명한다.

▲내 가슴 속에 깊이 우리나라 말이 있어 한국어로 준비한 게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

스러워 해도 됩니다”(한국어).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 4강전이 끝난 뒤 주전으로 뛴 선수들, 비주전으로 뛴 선수들이 나누어 훈련한 적이 있었다. 1분도 뛰지 못한 골키퍼(정성룡)도 비주전소에서 훈련했다. 우리는 11명만으로 힘을 내지 않는다. 모든 선수들이 힘을 합쳐 결실을 만들었다.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결실이 바로 이것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이다.

-전반전에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 좋은 장면을 살리지 못해 아쉽다. 그게 축구다. 스트라이커 이정협이 참 잘했다. 이정협을 처음 본 게 기억난다. 좋은 움직임은 보고 몇 경기를 더 지켜본 뒤 선발했다. 이정협은 소속 클럽은 2부 리그로 떨어진 상태다. 이정협은 거기서도 많이 뛰지 못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많은 선수들을 더 많이 지켜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선수들이 발굴이 되지 못한 것인지 (한국 축구 전반이) 기술적으로 부족하지 모르겠다. 이정협이 더는 뛰지 못해 센터백과 패스를 최전방에 올리기까지 했다. 한국 축구의 문제점 하나만 얘기하고 싶다. 대다수 선수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배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수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칠 뿐 축구를 즐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연합뉴스



‘굿바이~’ 차두리 축구 대표팀 은퇴

31일 한국과 호주의 2015 아시안컵 결승전이 열린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 차두리(35·FC 서울)는 이날 은퇴 경기가 예고된 까닭에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애초 작년을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경기력을 아깝게 여긴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의 요청으로 아시안컵까지 뛰기로 했다.

대회 초반에 비틀거리던 슈틸리케호는 구억구역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다. 그 과정에서 현재 대표팀의 최고령 선수인 차두리는 마치 전성기가 다시 온 것처럼 날았다.

특히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는 질풍

같은 장거리 드리블로 손흥민(레버쿠젠)의 추가골을 도와 대표팀의 2-0 완승을 도왔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오버래핑은 질풍 같았다. 전반 38분 공격수 이정협(상주 상무)의 패스를 받아 번개처럼 페널티지역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다. 손흥민(레버쿠젠)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게 차단돼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차두리는 2001년 11월 8일 세네갈과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75차례 A매치에 출전했다. 차두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선수이기도하다.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는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연합뉴스